‘모으면 쓰레기, 나누면 자원’

쓰레기 ZERO! 자원순환형 도시 광진!

(광진구 청소과 ☎ 450-1375)

오늘날 우리는 지속적 경제발전과 문명의 혜택으로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편리함만 추구한 나머지 이를 얻기위해 더 소중하게 여겨야할 “환경”을 그 비용으로 지불해 오고 있었다. 산업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자원사용과 개발로 현재 환경파괴는 물론 각종 폐기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제로화(ZERO)로 그 해답을 찾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광진구는 구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집중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구민들의 쓰레기 배출실태를 알아보고자 종량제 봉투를 들여다 본 결과(1차 : ’12. 11월, 2차 : ’13. 2월) 일반폐기물은 45%에 불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합성수지, 종이류 등)이 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리배출만 잘 하더라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도 살리고, 연간 일반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처리비용인 50억원을 약27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에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하여 소각 · 매립되는 일반폐기물 쓰레기양을 가능하면 제로화 시키자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일먼저 한 것은 주요일간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실태를 알려 그 심각성을 호소하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켰다. 이어 광진구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개인의 인식전환과 실천을 맹세하는『쓰레기 제로화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였고, 아나바나 장터(총237종, 판매금 3,740천원) 운영과 직원, 구민들이 수집해온 재활용품을 판매(수익금 5,760천원)하는 행사도 벌였다.

“쓰레기 제로화” 실천 선언문 선포식 및 아나바나 장터 운영 (’13.3.22.)

☐ 재활용품 수집 실적

- 부서 · 동주민센터 직원 (단위 : 개)

총 계	가전제품	휴대폰	헌 옷	신 발	가 방	책	기 타
1,411	34	54	767	59	36	266	195

- 구민 (15개동 주민센터) (단위 : 개)

폐가전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의류	종이류(kg)	폐식용유(ℓ)	고철(kg)	합성수지,캔,병류등(kg)
1,027	444	3,341	17,760	5,170	3,780	131	4,570	1,912

한편,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쉽게 선분리 배출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우선 5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5개소에는 마대걸이형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고, 일반가구에는 자체 개발한 일체형 3구(합성수지, 종이류, 쓰레기) 투입방식의 “쓰레기 분리통”을 보급하기로 하고 6,000가구를 시범선정하여 해당가구에 2013. 9월초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한 후 분리통을 지급하였다. 위 두 사업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구민들의 쓰레기 배출 개선상태를 모니터링한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분리통 개발 보급

안녕하십니까?
저희 광진구에서는 2013년도를 "쓰레기 제로화 실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 6 월 24일 귀댁(구의동 64 번지 33호)에서 배출하신 종량제 규격봉투를 분리 배출 수거 해본 결과 당초 (11.5 Kg)에서 분리작업 후(종이류,병류,프라스틱)등 재활용품을 제외한 결과 일반쓰레기 (4.6 Kg)이 나왔습니다
■ 쓰레기 배출량 측정현황

분리 수거전	분리 작업중	분리 수거후
11.5 (Kg)	(종이류,병류등) 6.9 (Kg)	4.6 (Kg)

향후 쓰레기 배출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실천화로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2013. 6 . 25.

광진구 구의제2동장

쓰레기 번지 실명제 (해당번지 주택의 쓰레기 분리실태 안내문 부착)

아울러 아파트에 비해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엔 "쓰레기 번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 구의동 68~73번지 일대, 250여 가구)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된 '쓰레기 번지 실명제 운영반'이 그 지역의 **종량제 봉투속 쓰레기 배출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진 안내문 형식으로 제작, 해당주택 대문에 부착**함으로 구민 스스로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당연한 일로 인식시키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일대 일반쓰레기양을 50% 이내로 감량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은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ZERO)"로 동참

민 · 관 협력을 통해 일반음식점들도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음식점들은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를 변기옆 휴지통에 버리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외국인들이 위생 · 청결에 좋지 않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고, 요즘 화장지는 물에 쉽게 녹아 변기에 그대로 투입시 문제가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얻어 업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선도업소를 통해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킨후 점차 전업소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건대 맛의 거리'를 비롯한 음식문화특화거리(4개)에 883개소를 선도업소로 동참시켜 **화장실 변기칸내 휴지통을 모두 치우고 문마다 손님들의 동참 스티커 (문구 : "휴지는 변기에...") 총1,434장을 부착**하는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사업 참여 모범업소(178개소)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인 에티켓통도 설치해 주었다.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 스티커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스티커 및 에티켓통

전체업소들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음식문화특화거리에 현수막 게첨(9개 지점) 및 건대맛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음식점 영업주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민원실 IPTV, 유튜브 등에도 방영하였다.

한편,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업주들은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니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며 일반쓰레기 배출량도 70%나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음식점 화장실 쓰레기통 없애기' 현수막 게첨

'음식점 화장실 쓰레기토 없애기' 캠페인 실시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 확산과 나부터 실천하기

'쓰레기=자원'이라는 인식 확산과 나부터 실천하자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화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였고(2013.5월~7월) 이에 총69개 참여 공모작 중 「**생활속 작은 실천이 쓰레기제로화의 첫 걸음(동자초등학교, 이다영)**」 외 **9개의 작품을 선정** 시상하였다. 아울러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홍보 동영상도 직접 제작후 민원실 IPTV(24개소, 720회)를 비롯하여 인터넷방송국, 유튜브에 방영하고 유관기관에는 홍보CD로 제작 · 배부(450개)하는 한편 각종 기관, 단체회의시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

쓰레기 제로화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올바른 분리배출 영상' IPTV 방영

노력과 성과, 그리고 우리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

환경과 미래를 생각한 광진구의 한발 앞선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쓰레기는 곧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사업취지와 추진사항이 수차례 보도 되었다. (중앙 21건, 지역 28건)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13.5.16.)을 비롯하여 동작구 외 2곳의 기관에서는 "음식점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 벤치마킹으로 관련자료 일체를 제공해 주었다. 음식점의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업소 전체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종량제 봉투 비용) 15억 중 10%이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과연 혁신적이라 할 수 있겠다.

※ 광진구 쓰레기 제로화 사업의 추진목표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구 분	2012년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 (사업종료)
발생량(톤/일)	91.7	87.1(5%↓)	82.5(10%↓)	73.4(20%↓)	45.85(50%↓)

우리가 매일 버리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현재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의 2,400만 인구가 버리는 각종 폐기물은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 매립지의 사용기간은 2016년까지로 기간 연장이 당장 필요하나 여러문제로 난관에 부딪혀 있고, 다른곳의 새로운 매립지 조성은 3조2천억이라는 비용이 충당된다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필요한 2017년에는 사용할 수도 없다.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집앞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일... 이런 노력과 실천만이 맑은 서울,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청소과장 : 박상일☎450-7600 작업팀장 : 이대범☎450-7611 담당 : 양재우☎450-7614